

3월 7일은 온 교회가 함께하는 센서스 주일

2005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 한인 인구수는 205만 7천 5백여 명이다. 이는 2007년에 집계된 미주 한인 250만 명과는 50여만 명 정도가 차이 난다. 이러한 통계의 차이는 연

한인교계 단체들은 2일 오전 11시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인구센서스 참여를 위해 교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3월 7일은 센서스 주일, 신본 노출에 대한 우려 없어

하다 언론의 홍보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인구센서스에 참여해 한인들의 위상을 올리고, 지금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여겨



LA한인회관에서 교계지도자들이 센서스 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태근 기자

남가주 한인교계, 권익신장 위해 개교회 센서스 참여 당부

4천억 불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불명확한 통계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와 남가주 한인목사회(이하 남가주목사회)등 남가주 한인교계 단체들이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개교회가 3월 7일을 인구센서스 주일로 정하고 교회에서 설교 및 광고를 통해 교인들의 인구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총무 송규식 목사는 “인구센서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

스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종교평화협의회 김동진 신부는 “인구센서스 참여에 한인들의 참여 필요성을 느낀다. 4대 중간이 이 일을 위해 나섰다 불교, 천주교 등도 3월 7일을 인구센서스 일로 정하고 참여를 위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 센서스국 LA지역 제니 주 한인담당 홍보관은 “매년 연방정부 기금이 각 지역 사회 인구조사 정보에 따라 배분되는데 인구조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 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 설립이나 도로 도수, 응급실 일손이 부족해 치료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

는 등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된다”며 “인구센서스에 참여해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혜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세가 말하는 “KM과 EM의 연합은 이렇게”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열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1세와 2세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까?

결코 그리 되어서 안 된다는 합의가 양자 간에 이뤄져 있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동의도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난제에 대한 김승욱 목사의 해답은 명쾌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하나같이 주신 비전에 관해서만은 동일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지난 27일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자신이 시무하는 남가

주사랑의교회 모델을 통해 해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갔다. 김 목사의 개인적 컨텍스트는 1.5세대. 10살에 이민 와 미국에서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했다. 영어가 좀 더 편하지만 한국어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의 목회적 컨텍스트 역시 1.5세대. 1세 목회를 하는 1.5세대도 아니고 2세 목회를 하는 1.5세대도 아닌 양측을 모두 목회하는 1.5세대 목회자. 드문 케이스다. 대학생 때는 IVF 활동을 하며 대학생

사역을 했고 신학교에 가서는 2세 목회를 거쳐 대학 목회로 넘어갔다. 필라델피아에서 1세 목회도 배웠다.

미국 전체에서 50위 안에 드는 대형교회이며 한인교회 중에는 최대 교회인 남가주사랑의교회에 부임한 그는 전형적인 1세 중심의 교회였던 교회를 1세와 2세가 동등하게 훈련 받고 참여하는, KM과 EM의 구분이 없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2면에 계속)

2세 이하 30여만 명 절대적인 영양결핍



아이티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17만 명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번 대지진으로 20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자 절반은 어린 아이들이다. 유엔아동기금 (UNICEF)에서

는 현재 2세 이하 약 30만 명의 아동이 절대적인 영양결핍 상황에 놓여있고 6개월에서 5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사와 과상풍, 흉역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진으로 인해 5,000~8,000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어 약 1백 80만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인신매매의 위험에 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티 아이들을 위한 도움이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주한인 전문이사 정보사이트 Click 하세요~

2424USA.com

이것이 바로! 이사가 고민 해결!! 한차원 높은 이사 문화 이제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운반해야 하는데...
어떤 이삿짐 회사 선택해야 할까?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하는데...

Tel: 310-808-9350 / Fax: 310-808-9353
15934 Figueroa St. Gardena, CA 90247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SMOG CHECK, DAEWOO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용자) 용자조정, 용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대표전화 **213.380.2828**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오프라 윈프리 범신론 견해 또 물의

삶의 역경을 딛고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 받는 여성 중 한 명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으며, 사회적 귀감이 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영적 가르침은 위험할 수 있다.

수년간 뉴에이지 논란을 빚어 온 오프라 윈프리의 사상이 다시 한 번 비판 대에 올랐다.

윈프리는 방송이나 글, 강연에서 자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God-consciousness)’ 또는 ‘그리스도 의식(Christ-consciousness)’을 일깨우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얼핏 들었을 때 매우 세련된 기독교적 메시지 같지만, 실은 전적으로 우리 밖에 스

기한다. 윈프리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감각과 의식을 통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맥도웰과 스타렛은 “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절대적 진리 대신 지극히 상대화된 진리에 의지하게 하

면 윈프리는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축하를 건넨다든지, 동성애로 논란이 된 복음주의 목사 테드 헤저드가 동성애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힘들었다고 고백하자,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갈망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의식의 깊은 곳을 관찰해야 하며, 어떤 갈망이든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조슈 맥도웰과 데이브 스타렛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사상을 비판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O’ 하나님: 오프라의 영적 가르침과 진리에 관한 대화(O’ God: A Dialogue on Truth and Oprah’s Spirituality)의 공동저자인 조슈 맥도웰과 데이브 스타렛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전하는 메시지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경계를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밝히고 있는 윈프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범신론적 견해를 꾸준히 피력해 미국 보수 교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윈프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08년,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기 웹미나 ‘새로운 지구(New Earth)’ 이래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 안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

방송, 글, 강의 통한 기독교 진리 왜곡 우려

스로 존재하시는 자로 계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초월적 힘으로 왜곡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한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부인 우리’라는 윈프리의 개념은 또다른 문제를 제

며, 때로는 죄를 정당화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윈프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 건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주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데, 동성연인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는 한 출연자에게 “자신의 내

로버트 박 선교사 위한 웹사이트 미국에 개설돼

그레그 마틴, 기독교 지도자들 북한 인권 동참 촉구



로버트 박 선교사.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 선교사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웹사이트가 최근 미국에 개설됐다. 웹사이트 개설자는 로버트 박 선교사에 대한 구명운동이 아니라 세계를 깨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가 전했다.

www.robertparknews.com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의 중소 도시 해리스버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그레그 마틴 씨가 박 선교사를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 주사다.

이 웹사이트는 로버트 박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펼쳤던 운동 내용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박 선교사의 글들, 동영상, 언론보도, 지지 시위 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 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성탄

절인 지난 해 12월 25일 하나님의 사랑을 북한주민에게 전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간 뒤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웹사이트를 개설한 마틴 씨는 박 씨의 참 뜻을 알리고 북한의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을 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로버트 박 선교사가 온 몸을 바쳐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알리려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마틴 씨는 그런 의미에서 웹사이트 개설 목적의 우선순위가 로버트 박 씨 구명운동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기독교인들과 국제사회가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로버트 박 선교사가 원하는 것이며, 자신도 구명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 북한 내 인권의 참혹성에 눈을 뜬 뒤 다양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틴 씨는 북한 정 부 뿐 아니라 침묵 중인 미국과 한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운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1면에 이어〉 한 교회를 하나의 비전속에 선교와 훈련에 동원하라

남가주사랑의교회는 하나의 당회 속에 1세와 2세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에 1세와 2세가 참여하고 있다. 가령 보통 한인교회처럼 1세가 주를 이루는 선교부가 있고 EM 안에 선교담당자가 있는 형태가 아닌, 교

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하나의 선교부가 있고 이곳에 1세와 2세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형태다. 매달 한번 드리는 비전예배는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드린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사역자들이 한 달간 준비한다.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주력사역인 제자훈련 역시 1세와 2세가 하나의 제자 훈련 교재를 선택해서 한국어 혹은

영어로 번역한 후 함께 공부한다. 이 과정에서 1세는 1세대로, 2세는 2세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르치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1세와 2세가 공유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1세와 2세가 동일하게 참여하며 회의도 한국어와 영어로 하고 때론 통역까지 필요해 두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선교

지에서서도 그리 하는데 왜 여기서는 못하겠는가”라고 김 목사는 말했다.

선교지에서는 되는 것이 왜 여기서는 안되나

안 되는 이유에 관해 김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1세 목회와 2세 목회를 언어와 문화의 이유로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이 문제는 언어나 문

화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슈다. 하나님의 이슈는 요엘서2장에 나온 것처럼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 3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당신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물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황화는 필요하다. 언어도 다르고 부르는 찬양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에

관해서만은 동일해야 한다. 아무리 같은 지붕에 있더라도 비전이 다르면 한 가족이 될 수 없고 결국 국 분리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지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아예 다른데도 현지인들과 잘 통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전이 같기 때문이다. 1세와 2세는 그보다는 공통점이 많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TEL : (213) 739 - 0403
FAX : (213) 739 - 0408
Email: chdaily@gmail.com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로컬/장거리 국제전화까지 무제한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24.99 /월 (TAX 포함)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아이디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IP BOX가 없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지금 가입하시면, **아이 코리야 넘버 무료!**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30일 환불 보장]

마이 코리야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800 872 2902**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말하는 글로벌 리더십

12일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서 월로우크릭교회 GLS 개최



빌 하이벨스 목사

글로벌 리더십 섬밋(The Global Leadership Summit, 이하 GLS)이 월로우크릭교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 공동주최로 오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글로벌 리더십 섬밋(The Global Leadership Summit)은 매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삶 속에 비전과 영감, 그리고 실질적인 사역전략을 불어넣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리더십 향상 컨퍼런스다.

이 리더십 컨퍼런스는 빌 하이벨스와 월로우크릭교회연합이 지역교회와 그들이 속한 교회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지역교회 지도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리더십 섬밋이라는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으로 발전된 것이다.

GLS는 해마다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명확한 비전과 실제적인 리더십 개발, 깊은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언어권 뿐만 아니라 15세 리더십들,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유용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사로는 월로우크릭교회

의 창립자이자 담임인 빌 하이벨스 목사(Bill Hybels),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십교회 담임 웨인 코데이로(Wayne Cordeiro), 국제 컴패션 회장 웨스 스태포드(Wess Stafford), 국제정의 선교회 설립자이자 대표 게리 하우겐(Gary Haugen), 라이프 처치 TV교회(LifeChurch.tv) 설립자이자 담임 크래그 그로스켈(Craig Groeschel)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국제제자훈련원은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속에서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는 리더십이 지금 이민교회의 리더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월로우크릭교회의 GLS는 이민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리더십의 방향과 전략을 제공하는 탁월한 리더십 컨퍼런스다. 이에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월로우크릭교회의 GLS를 그대로 옮겨와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리더십의 진공을 제공하고자 GLS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의료선교사 양성한다

미주 기독교 의료선교 협의회(회장 전희근 장로,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이하 KAMHC)는 의료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해 선교사로 동원하고, 선교의 비전 아래 교회와 선교단체, 세대와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한미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세를 위한 의대/치대 입학 설명회가 열린다. 전,현직 교수 및 입학사정관, 개업의, 의대 재학생이 의대/치대 입학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의 취지문>

의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으로 간 선교사들을 모시고,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1세대들은 서로 선교의 정보를 나누고, 연합하며, 도전받고, 함께 선교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의료사역을 준비하는

라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번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를 통해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떠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의료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26일부터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 개최돼

올해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엘바인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의료 선교대회는 CURE International, Interserve USA를 비롯, 50개의 홍보전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각 선교단체들은 사역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사진으로는, 한국에서 25년간 치과선교사를 지낸 Dr.Nieusma와 계명대 간호학과 김정숙 교수, Cure International 회장인 Dr.Scott Harrison, 새들백교회의 AIDS사역책임자인 Elizabeth Styffe의 4분 주강사들 이외 24명의 강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선택강의를 진

행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세를 위한 의대/치대 입학 설명회가 열린다. 전,현직 교수 및 입학사정관, 개업의, 의대 재학생이 의대/치대 입학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의 취지문>

100년 전 한국 땅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일생을 바친 의료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과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민족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예방 방법을 알려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한 귀한 도구로 자신을 드렸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복음을 모르고 절망과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나, 참여의 기회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헌신의 마음과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빛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명



지난 한미의료선교대회 후 단체사진 촬영.

계기가 될 것이고, 2세에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주 기독교 의료선교 협의회는 “의대재학생 중 한국계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사실과 9.11테러 이후 많은 지역에서 백인 선교사보다 아시아인 선교사가 더 환영받는 현상을 볼 때 현 시대는 백인들보다 한국계 미국인이 더욱 선교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0년 전 서양선교사들이 작은 나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 일시: 2010년 3월 26-27일 장소: 베델한인교회 강사: 한국에서 25년간 치과선교사를 지낸 Dr.Nieusma와 계명대 간호학과 김정숙 교수, Cure International 회장인 Dr.Scott Harrison, 새들백교회의 AIDS사역책임자인 Elizabeth Styffe 외 24명 주제 강사

(지재일 기자)

교회 성장 비결 직접 체험해 봅시다

베델한인교회, 제9회 교회 성장 실험교실 개최

베델한인교회가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제9회 교회 성장 실험교실을 실시한다. 베델한인교회는 캘리포니아 엘바인 지역에서 교회성장을 경험하게 된 여러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직접 실습해 보는 교회 성장 실험교실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

다. 행사를 개최하는 베델한인교회는 34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현 담임 목사인 손인식 목사가 20년 전 부임 후 현재 출석 교인이 약 12배로 성장하는 교회 성장을 경험했다. 교회는 10 에이커의 대지 위에 3개의 성전, 7개의 채플, 2개의 수양관을 사용 중이며 5만 4천 스퀘어의 베델 비전센터를 9년 전 완공하여 사용 중이다.

교회 성장 실험교실에는 미국과 유럽, 남미, 일본, 한국 호주 등에서 8차에 걸쳐 7백여 명의 목회자들이 실습, 워크샵, 강의, 토론

등에 참여했다.

베델한인교회의 사역으로는 강해설교, 셀 교회 사역, 영성 사역의 현재와 미래, 교회 성장형 예배, 교회 비전과 교회 성장, 선교 정책과 교회 성장, 크라운 국제사역, 교회 내부 갈등의 극복과 교회 성장 전환, 2세 목회 방향과 1세 2세 접촉 원리, KCC 기도 운동과 민족 구원의 비전, 가정사역과 교회 성장 등이 있다. 교회 측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야 한다. 교회 성장이 미숙한 교회 시스템이나 행정적인 부분 혹

은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교회는 수년간의 목회와 사역 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위로와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행사 참가 복장은 주일만 정장이며 평일은 캐주얼이다. 참가 대상은 세계 각국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및 부목사, 선교사 등이다. 단 목사의 경우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부부 동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일인당 150불이며 부부 동반시 250불이다. 이번 행사 정원은 1백 명이다.

문의 : 949-854-4010

(이태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로스앤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임원 명단

(The Los Angeles Council of Korean Churches)

고 문 - 박영창, 임동선, 조천일, 류당열							
자 문 - 구기조, 김사무열, 함명철, 홍영철, 반종근, 김영모, 원희철 성충정, 김재연, 황천영, 김인식, 이재영, 김상덕, 송정명, 석창균							
임원 - 회장: 표세홍 / 부회장: 권오달, 박효우, 방동섭, 이성주, 백형권 / 협력 부회장: 엄테레사, 임형주, 김창겸, 이주호, 백형로							
총무: 백성식 / 부총무: 양병삼, 김원락, 정우성, 김광삼 / 협동 총무: 김영배, 지윤성, 이상억, 마원철 / 서기: 서요한 / 회록 서기: 김인철							
회계: 이병용 / 부회계: 김재열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선희 법률분과: 김충립							
예배분과	진유철	장로분과	이신모	간병인분과	자넷최	친교분과	서사라
교육분과	김희창	부정부패추방	김문철	원로분과	유응열	여성분과	서인애
선교사분과	이재환	사회단체교류	김완선	언론분과	드보라김	의료분과(한)	박영권
여교역자분과	김명숙	선교분과	이원갑	교회갱신분과	방동섭	노숙자분과	그로리아김
성경번역분과	이원열	음악분과	데이빗	무료병원설립	정순규	교정분과	정영득
성경정독분과	김정득	의료선교사분과	백형권	호스피스분과	이정우	권사분과	박춘자
홍보분과	남철우	평신도선교분과	임혜빈	개혁교회분과	이중용	한미친선교류	노인국
청소년분과	박용수	신학분과	김인수	전도사분과	채동선	부흥사분과	박후식
의료분과(영)	강신원	체육분과	장병철	봉사분과	조후연	윤리실천분과	유영석
상담분과	다윗박	복지분과	박성근	통역분과	홍윤표		
장애우분과	공혜미야	찬양운동분과	구옥현	영성분과	유기중		

부회장: 권오달, 박효우, 방동섭, 이성주, 백형권
협력 부회장: 엄테레사, 임형주, 김창겸, 이주호, 백형로
총무: 백성식
부총무: 양병삼, 김원락, 마원철, 이상억
실행 총무: 김영배
서기: 서요한 / 회록 서기: 전석호
회계: 이병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선희 법률분과: 김충립

로스앤젤레스 교역자협의회
T. 323-325-4587 www.ckcla.onmam.com
17400Vanowen St Van Nuys, CA 91406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업내용

- 2월(토)~7(주일) 본회 후원, 글로벌 비전뱅크, 글로벌 비전스쿨(미주성산교회)
- 2월 5일(금)~15일(월): 본회 아이터 침사 의료진 파송(단장: 의료분과 위원장 강신원박사외 의사5명, UN일원으로, 한병문과 위원장 백형권 박사 후원)
- 2월 15일(월) 장소:미주기독교방송 행사제목: 미국 호스피스자격 취득 강좌 (대상: 목사, 교역자) 강사: 본회 호스피스분과 위원장 이정우 박사
- 2월 27일(토) 간병사역, 노인케어 세미나 (강사: 본회 간병인분과 위원장 자넷 최 박사) 강의:미국의료시스템, 양로원현황, 노인들의 정부혜택,간병인 자격코스(영주권 신청) 일시:2월27일(토)오후2~4시 나성한인감리교회(구 청운교회) 전화:213-365-6191(남강식목사)
- 3월 무료법률상담, 본회 법률자문그룹 (이문규 변호사 그룹) 날짜: 3월 7일(주일) 오후2시 장소: 미주성산교회 상담내용: 취업이민, 종교비자, 영주권 등 기타 상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서를 제출바람 (담당 패트릭 정 부장) 전화: 이문규 법률 그룹 (213) 213-380-2828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라, 글로벌 비전스쿨

2월 6일부터, 목회자 선교사 대상 미주성산교회서 개최

은준관 총장(실천신대)이 북미기독교교육학회 주관 '20세기 기독교교육자'에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0세기 기독교교육자'는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를 망라해 20세기 북미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준 학자 160명을 선정했으며, 주최측은

이들이 저술이나 강의, 기관의 리더나 사역모델 개발자로서 20세기 기독교교육 역사에 언급돼야 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최측이 인터넷에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은 총장은 교육 신학을 구조화해 신학과 교육학의 통합을 이뤘다고 소개하고, 종교교육학을

신학적 이론으로 정립하고 신학을 실천과 연계시킨 공로를 인정했다. 무엇보다 미국·캐나다 교육학자들과 그들의 기독교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반영됐다. 명단에는 이와 함께 은 총장의 약력도 소개됐다. 은 총장은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

니아 버클리의 PSR(Pacific School of Religion)에서 학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Distinguished Alumni상을 27일 수상한다. 이 상은 지역 사회와 교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낸 동문에게 수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라고 한다.

(자재일 기자)



글로벌 비전뱅크는 미주성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십 차례의 고발과 고소 등 고난 극복기



김영애 권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가 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김영애 권사

초청 간증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흑암 중의 보화'라는 주제로 열리며, '갈대 상자'의 저자인 김 권사는 숱한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격려할 예정이다. 김 권사는 한동대 초대 김영길 총장의 아내로, 학교 출범에서부터 수십 차례의 고발, 고소와 총장 구속 사태 등 숱한 고난의 과정을 '갈대 상자'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오렌지 카운티한인교회 (714) 893-1652

(이태근 기자)

생수의강교회 하덕규 교수 초청 찬양 전도집회

80년대 포크음악의 선두주자였던 '시인과 총장'의 음유시인 하덕규 교수가 LA 생수의강교회에서 첫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하덕규 교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회의 찬양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도전을 심어 주고 있는 찬양사역자로서 또 대학(백석대 기독교실용음악)에서 후학들도 가르치고 있다.

시인과 총장의 그룹으로 많은 히트곡(가시나무)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던 그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 하나님을 만나



하덕규 교수

고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노래와 간증을 통해 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마련된다.

한편 이번 집회가 열리는 LA 생수의강교회는 작년 3월 El Monte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더 넓은 교회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특히 내과 의사이기도 강신욱 담임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확신에 찬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다. 또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의 의료선교

에도 앞장서서 사역하고 있다. 교회측은 "하덕규 교수님의 찬양 집회를 통해 충만한 은혜와 삶의 도전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하덕규 교수 초청 찬양 전도집회

장소: 생수의 강교회(LA)
시간: 2월 6일(토) 오후 7시
주소: 1730 W. Olympic Blvd, LA, CA 90015(삼라한방 병원 건물의 2층. 넓은 주차공간 확보돼 있음)
문의) 714-726-4080 이재훈

(자재일 기자)

은혜로 온 30년, 밀알의 삶으로 새로운 30년

밀알선교단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밀알선교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밀알선교단 미주대회'라

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행사였다.

행사에서는 밀알의 시작과 밀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사역을 확장해가는, 특별히 미주 북

행됐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알고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세미나인 '장애인신학세미나'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구절 분석', '바울서신서에 나타난 장애인 이해', '장애인을 위한 언약공동체 신학', '장애인 선교의 성경적 관점' 등의 제목으로 각각 열렸으며, 마음을 열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마음 나누기 시간도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이 '레나마리아'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

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2010년 밀알장애인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려 창립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했다. 장학금은 93명의 학생에게 17만 1천 6백 불이 전달됐다.

행사 셋째날인 지난 22일 오후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시간에는 설교자로 나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 이원상 목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본문으로 한 '밀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밀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밀알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낮아 지셨듯 낮아지는 것이고



밀알선교단 창립 30주년 행사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태근 기자

떨어진 밀알이 죽어 열매는 맺는다는 것은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랑의 원리다. 밀알선교단이 이러한 밀알의 삶을 살 때 새로운 30년을 열어가길 수 있을 것이며, 3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그 사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놀라운 30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남가주 밀알선교단 이영선 단장은 30

주년 기념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 단장은 "밀알 30년 미주 밀알은 23년 아무런 계획 없이 달려왔는데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의 밀알은 미주의 모델이 되기 바라고, 발달 장애인 사역을 위한 매뉴얼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밀알선교단 창립 30주년 맞이 행사 열여

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세계 22개국에서 사역하는 밀알선교단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우며 장애인에 대해 바로 알린다는 3대 목표로 시작된 밀알선교단의 이번 행사는 창립 30주

가주에서 시작되어 전 지역으로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밀알의 선교 사역을 상영하는 영상 상영 시간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각 지단을 소개하는 소개 시간, 그리고 사역을 하며 겪는 어려움과 기쁨, 슬픔을 나누는 사역 나눔 시간 등이 진

지마 때에 주님의 사람이 선교 헌신서 온 주재 강의 교의 분석을 부름에 단기 기 원하는 나 갔다. 기도 후 사로 작정하 명 의 청년들 나와 무릎을 는 그들이

어 명이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 고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 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폴 에일먼 목사 (CCC 부총재)는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 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고 20대였다"며 "여러분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태어나 한번도 복음을 들 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종족에게 나가 자"고 복음 전했다.

또 한 사례를 소개하며 "60년 간 이란 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 는 그들이

안천호 선교사(에나 강리교 일무루 타니 마사이 지방회 선교목사) 역시 강 의를 통해 선교를 도전하며 "우린 때로 너무 오랫동안 위민업을 한다. 달리가 를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너무 오래하 면 달리기도 전에 지치는 것처럼 선교 를 위한 준비에 너무 오랜 시간을 소요 하면 지친다.

믿음으로 전전하라. 선교를 결단했다 면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라. 믿음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 어야 한 주년을 맞는 이 교회인

약 28억 원)을 모아 화재다. 워렌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담임목 사로 재직 중인 새들배 교회 홈페이지에 "기부금 90만 달러가 필요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워렌 목 사는 이 호소문에서 "경기침체 맞 에 우리 교인의 10%가 실직한 상 태에서 교인들과 공동체를 돌봐 야 할 우리의 겸비는 급격히 늘어 난 반면, 교회 수입은 정체된 상 태"라며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 어야 한 주년을 맞는 이 교회인

세들배교회 워렌 목사 호소문 한 3월 만에 240 화재다.

사기 글을 올리자 기독 금세 가득 차서, 30분 자를 배워야 할 정도였

주년을 맞는 이 교회인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하는교회 | 담임 최성철 목사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 714-236-0256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 Packaging Service
- Taiyu Yuden Blank CD-R 판매
- 3UP CD Label 판매
- 각종 case & accessory 판매

Philips License
획득한 정품 CD-Rs.

CD DVD 복사기

- 1Year Warranty & Lifetime Technical Support

SKMAX TONER는 hp brother Canon SAMSUNG EPSON I.F.X.MARK D-ALL

- Powder만을 Refill에 판매하는 문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 Powder Refill 제품 구매로 프린터 작동 이상이나, 프린팅 용량 부족의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 * 100% 품질 보증 !!!, 100% Satisfaction Guaranteed!!!
- (문제 발생시 100% 교환 및 환불 보증)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 가격이 싸서 구매했던 Toner 제품의 품질에 불만족 하신분
- 저가 Refill 제품의 프린팅 용량 부족으로 불만족 했던분
- 제품 구매후 After Service에 불만족 했던 분
-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공급 회사를 만나지 못했던 분

SKMAX Toner로 연락 주세요.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해드립니다.

Hot! Hot! Hot! Special Sale Items!

LAX Media, Inc. (SKC 미주 서부 총판) 944E Pico Blvd. #4 Los Angeles CA 90021
TEL. 213-749-0909, 213-718-3189 email : laxmedia@yahoo.com

합동 기도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기도한국발대식

6월 20일 서울 올림픽
공원서 전국대회 개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서정배 목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도한국 2010 발대식이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 회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도한국 2010 메인행사인 전국대회는 오는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제1경기장(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오는 2012년 교단 설립 100주년을 준비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기도한국 집회는 올해 특별히 6·25 발발 60주년 기도대성회로 개최된다. 2년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했던 기도한국 준비위원회는 올해 '기도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를 기치로 기도운동에 나선다.

좌측부터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 총재,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장, 전병호 NCKK 회장,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 송경호 기자

이날 발대식 예배는 기도한국 2010 대회장인 서정배 총회장이 설교했다. '엘리아의 기도(약 5:13-18)'를 주제로 설교한 서 총회장은 "엘리아는 악령들로부터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며 "우리도 어려운 국가를 위해, 교단과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장로 부총회장(대전중앙교회)이 기도, 노홍빈

“민족의 하나됨 위해 한기총·NCKK 한 목소리 내야”

이광선 목사(신일교회)와 전병호 목사(군산나운복음교회)가 각각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로 취임해 정계 지도자들과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두 단체의 수장이 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감당해나가길 원한다. 한국교회가 지구촌에 최고 선교사 파송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취임 축하 및 꽃다발 증정이 이어진 후 먼저 감사 인사말을 전한 이광선 대표회장은 "1948년 국회 개원 때 이윤영 목사님께서 민족이 손을 함께 잡고 노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했는데 그때가 단축되려면 먼저 한기총과 NCKK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계에는 "망치로 국민의 집을 부수는 일만은 하지 말아달라. 폭력이 아닌 의회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면 우리가 다 함께 노래하는 날을 속히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총 이광선·NCKK 전병호 회장 취임예배

1일 오전 7시 반 여의도 국회의 의원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선교연합, 국회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에는 양 기구 대표와 교계 지도자들 및 김영호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정

선지자의 말을 잘 받아들인 왕은 성공했고 영적 분별력 없이 잘못된 길을 간 왕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다"며 "두 어른이 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셔야 영적 분별력이 어린 국가가 혼란에 처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

이러 인사말을 전한 전병호 회장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에 두 단체가 하나되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고 본다"며 "이광선 목사님은 남이 아니다. NCKK 회원교단인 예장 통합의 증경총회장으로서기에 연합과 일치가 아주 잘 되어지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정치 문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 싸우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싸우고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으면 국회의 문화가 아름답게 발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좌측부터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 총재,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장, 전병호 NCKK 회장,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 송경호 기자

〈송경호 기자〉

대법원, D신문 발행인 조효근 씨 유죄 확정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던 D신문 발행인 조효근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월 28일 조효근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으며 "한국기

조효근 씨는 막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D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홍콩의 모 임의단체와 일본의 한 오컬트(occult) 출신 블로거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보도했으며, 여기에 본지도 관련성이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를 상습적으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D신문의 허위 보도를 근거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온 일부 교계 언론들에게도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와 본지 지사가 진출한 지역의 경쟁지들은 당시 D신문

호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행보를 보였다.

이는 최 목사가 설립했고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 그와 관계된 한국과 해외 교계의 신문들의 편을 들고자 D신문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신문은 본지와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최 목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는 D신문의 기소사건에 깊이 관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한기총 이대위를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주려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됐다.

〈류재광 기자〉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독교를 위해 기사를 썼다는 피고인(조효근 씨)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홍콩과 일본, 미국 교민사회 등지에서 제기돼온 본지 설립자의 재림주설과 본지와 의 관계에 대한 모든 루머는 법률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됐고, 근 2년 동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수십 건의 추측성 기사와 오보를 게재함으로써 본지와 본지 설립자의 명예를 훼손해온 D신문

로 일삼아왔다. 특히 홍콩의 모 단체의 경우 중국 대륙 내에서 증거를 날조하고 거짓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유를 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언론사의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 기사를 시발점으로 지금껏 온갖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또 최근 삼신론 및 성령잉태부인 이단 사상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이단 정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 소재 빛과소금교회)와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본지와 D신문의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D신문 조효근 씨를 일방적으로 응

“로마 가톨릭 교회 수용이 WCC의 결정적 과오”



평택대 양광호 외래교수 신학 잡지서 WCC 비판

평택대학교 양광호 외래교수가 신학 잡지 '목회와신학' 1월호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본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WCC의 다원주의적 노선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 같은 잡지 10월호에 실렸던 이형기 장신대 명예교수의 글 "WCC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WCC에 문제가 없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교수가 다원주의적인 종교간 대화에 대한

WCC의 입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에큐메니칼의 정신만을 앞세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WCC의) 자세는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기의 에큐메니칼적인 방법론은 분명히 로마 가톨릭 신앙을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긴급요청

가난의 빛이 불잡혀 있던 그들에게 몰아 닦친
또 다른 재앙!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줍시다.

아이티(Haiti)

지진 긴급구호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육이오-1950

사망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
3백만 명(전국민의 1/3) 지진 피해 입어

1월 12일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 카리브 해 아이티(Haiti) 강타 / 10만 명 사망 추정. 전인구의 1/3인 3백만 명 지진 피해 입어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5. 초기 구호 자금으로 구입될 물품

- ▶ 임시 텐트 ▶ 담요 ▶ 식수통 ▶ 식기 용품
- ▶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 키트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구호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주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티에 구호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월드비전 직원들은 비축해 둔 구호 물자를 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초기 타겟으로 1만 가정에게 구호 물자와 응급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에 있는 재난 물자 센터에서 18톤의 구호 물자를 항공편에 실어, 15일 오전 아이티 공항으로 공수하여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50년이 넘는 구호 사역 경험과 이미 갖추어진 구호 활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자들을 도울 수 있나?

- ◎ 크레딧 카드를 통한 후원 1-866-육이오-19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 체크 보내는 곳: TO: World Vision Korea Desk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 ▶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 World Vision
- Memo (For) : Haiti Earthquake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과 화해'

4월 4일 오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연합예배의 올해 주제는 '부활과 화해'로 정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KC, 회장 전병호 목사)가 공동 개최하는 연합예배는 오는 4월 4일 오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며, 준비위원회 측은 이날 2만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연수실에서 열린 2010 한국교회부활절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는 한기총에서 이광선 대표회장과 김운태 총무, 소강석 공동예배문준비위원장이, NCKC에서는 권오성 총무와 유원규 공동예배문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공동개최 5년째를 맞아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주제성구로 분단 65주년·한국전쟁 발발 60주년 등과 빈부 양극화·지역갈등·좌우이념 갈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소망을 담아 이번 연합예배 주제를 '부활과 화해'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광선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땅의 기독교에 희망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권오성 목사는 "부활절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세계 교회에서도 흔하지 않다"며 "올해는 특히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부활절이 되기 위해 두 달 전부터 예배문 준비

를 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준비위원회는 오는 8일 정오 서울역 KTX 역사 4층 별실에서 전국 40여개 지역기독교연합회와 교회협의회 대표들을 초청해 한국교회부활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지역별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와 표어, 설교본문과 제목, 예배문 등을 공동 사용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회만의 행사를 넘어 한국 사회와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연합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배문에서도 가능한 한 대

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유원규 목사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표어가 아직 나오지 못한 이유도 교회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슬로건을 담아가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교회 예배예전 형식과 내용을 세계교회 앞에 공유하고 표현하고자 올해도 예배문이 영문으로 번역된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성찬성례전도 계속 거행되고, 남북교회 공동기도 시간도 예배에 포함됐다.

올해 연합예배는 한기총에서 주관하며, 설교자는 3월 중순께 내정된다. 통상 설교자 선정은 연합예배를 주관하지 않는 단체가 추천해 선정한다. 올해 한국교회부활절준비위원회 조직은 대회장에 이광선·전병호 목사, 준비위원장에 오정현·조성기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예배문준비위원은 주승중 목사(장신대), 권혁승 목사(서울신대), 김기석 신부(성공회대), 박해정 목사(감신대) 등이 맡았다.

(이대용 기자)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가운데)이 2010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기총을 방문해 이광선 대표회장과 세종시, 용산 참사, 역사교과서, 사학진흥법 등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세종시 문제, 교회에 감동” “국가 위한 기도는 의무”

정운찬 총리, 이광선 신임 대표회장 내방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기총을 내방에 신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에게 취임 축하를 전하는 한편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9일 오후 한기총을 방문한 정운찬 총리는 이광선 목사에게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고 인사한 후, "사회적으로 이념·계층·지역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기독교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바쁜 국정수행 중에 이처럼 방문해 취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 취임 후 가장 시급했던 두 가지 과제가 용산참사 해결과 세종시 문제였다"며 "용산문제 해결

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세종시 문제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니 잘 해결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설득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운찬 총리는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의 환대에 무척 감동받았다"고 말한 후 "한기총의 세종시 관련 성명도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광선 목사는 "교회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며 "한기총이 세종시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

(류재광 기자)

KWMA 신임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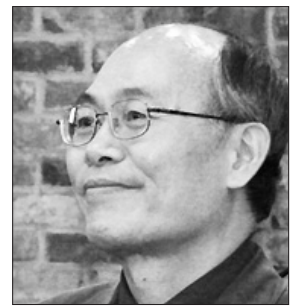
“다양화 · 전문화 통해 한국선교 ‘선진화’해야”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최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의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01년부터 9년 간 KWMA 선교부총무, 총무로 섬기고 이번에 강승삼 목사(현 KWMA 대표회장)에 이어 사무총장에 선임된 한정국 목사는 "한국 선교사 2만명 시대에 우리는 과감한 질적 선교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한국선교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KWMA는 한국선교의 건강한 선교 매커니즘을 개발하고 선진화된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음의 문이 닫힌 지역이 늘면서 최근 5년 간 한국선교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전인선교(총체적선교)에 대해서는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과 문화로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특히 "명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동원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선교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우리는 마음을 넓게 하여 세계를 품는 한국교회, 세계 전방 개척에 앞장서는 한국선교가 되도록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정국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KWMA에서 9년을 섬겨오셨는데 회고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9년이 9개월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무척 보



KWMA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

람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KWMA의 기획책임을 맡아온 저로서는 교단과 선교단체를 차별 없이 잘 섬기려 했으나 미전도종족선교나 전방개척선교 등 몇몇 방향으로 단체장들을 너무 '끌어가는'(pulling)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선교사 2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선교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한 질적 선교 패러다임 개발이 시급합니다. 물론 양적 성장도 계속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국선교의 문제 예방 차원이나 선교 결과의 건전성을 위해 질적 선교의 시스템화를 이루는 것이 한국선교 선진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KWMA는 건강한 선교 매커니즘을 개발하고 선진화된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선교단체나 선교에 방문, 참여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한국선교계 전체를 함께 디자인할 것입니다.

바문연 “수련 가장한 사이비집단 척결돼야”

사이비단체 비호하는 공직자들 발본색원 촉구

최근 종교성을 내포한 수련단체들의 내부비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른문화운동 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28일 성명을 내고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문연은 성명을 통해 "최근 H 수련원 내에 벌어진 반사회적이고 열거적인 행각들을 고발하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

건전한 마음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수련원이 열거적인 행각을 하거나 혹은 이를 자작적으로 구성해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 수련원이 가진 철학적인 밑바탕을 이미 흔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바문연은 "이런 반사회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련단체는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를 잠먹어왔다"고 강조했다.

World Vision

월드비전 직원 채용 공고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인재를 모십니다. 한국 동량의 고아와 미망인을 도우면서 태어나 현재는 전 세계 1백 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는 월드비전. 월드비전US 코리아 데스크에서 서부 지역 디렉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코리아데스크 서부지역 디렉터
- 모집인원: 1명
- 모집기간: 2010년 2월 20일까지 서류접수
- 필수자격조건:
 1. 신실한 크리스천
 2.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3. 미국내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4.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 구사자

- 우대사항: 1. 기독교 NGO 및 연합회 활동 경험자
2. NGO 마케팅 실무 경험자
-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 조직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 능력
 2.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 (한/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온라인 시스템 포함)
 3.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
 4.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5. 타주 출장 가능한 자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한/영 각 1통)
(관련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내용 포함)
2. 담임 목사님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

1. 1차 서류접수 jikim@worldvision.org
2.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공지, 월드비전 US 웹 사이트(worldvision.org) 은 라인 접수
3. 개별 면접

World Vision |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2월 16일 (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청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Better Together!”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준길 목사, 이하 교협)는 31일 오후 6시 2010년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유병우 목사(교협

간음 장로(교협 부회계)가 봉헌기도, 조달진 목사(교협 총무)가 광고, 백성민 목사(교협 직전 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진행된 하례에서는 양준길 목사가 신년사, 뉴욕교회협의

회), 부회장 유병우 목사(벤엘중앙교회), 황금환 장로(뉴저지연합교회), 총무 조달진 목사(원돌교회), 서기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 회계 이덕선 장로(필그림교회), 기록회계 이간용 목사(참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2010 신년감사예배 개최

부회장)의 사회로 황금환 장로(교협 부회장)가 기도, 윤명호 목사(교협 서기)가 성경봉독, 뉴저지장로성가단이 찬양, 나구용 목사가 설교, 김정문 목사가 '미국과 조국을 위해', 강세대 목사가 '교계와 교협을 위해' 특별기도, 뉴저지권사성가단이 헌금 특송(헌금은 전액 아이티 구제에 사용), 이회 회장 신현택 목사, 김경근 총영사, 임국 뉴저지 한인회 회장이 축사했다.

또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는 직전 회장 백성민 목사와 부회장 최중은 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조직은 회장 양준길 목사(필그림교

망교회), 협동총무 김중국 목사(새언약교회), 박정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양부한 목사(참소망교회), 유재도 목사(땅끝교회), 이창우 목사(주소망교회), 장승기 목사(아름다운성결교회), 감사 황정옥 목사(하나교회), 최중은 장로(한소망교회)로 구성됐다.

〈오상아 기자〉



뉴욕 뉴저지에서 참여한 목회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말씀으로 자녀 키우니 최고 성적은 보너스로

새언약교회(담임 이희선 목사)는 '백만불 장학생 엄마 되기'의 저자 황경애 사모 초청 간증집회를 29일 오후 8시 30분 개최했다.



황경애 사모

새언약교회, '백만불 장학생 엄마 되기' 저자 황경애 사모 간증집회

국제정치학과 전액장학생 출신으로 백악관 인턴십과 노동부 인턴십을 거쳐 현재 미국 10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Paul Weiss LLP에 취업, 예비법조인으로 들어선 첫째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양과 같이 보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 현재 펠로우십 10만 달러 장학생으로 미국 외교관 진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둘째 요한 최, 귀넷 카운티 소재 피치트리 릿지 고교 수석졸업생이자 하버드전액 장학생으로 게이즈 밀레니엄 100만 달러 장학금 수혜자인 막내 조이 최.

이 세 자녀를 낳기 전 황 사모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한다. 신혼 때 뉴저지에서 최자실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했다 "기도 제목이 뭐냐?"는 질문에 무심코 "아이들 갖는 것"이라고 한 말에 "그럼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을 듣고 시작된 일이었다.

금식 기도한 후 첫째를 갖고,

첫째를 낳고 나서 얼마 후 둘째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둘째를 낳고 얼마 후 셋째를 위한 금식 기도를 했다. 황 사모는 "과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10개월의 철저한 모태교육은 엄마 배 밖에서의 10년 교육과 맞먹는다고 한다. 10년이 편하고 싶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모태교육을 시키시라"고 권했다. 황경애 사모는 모태의 자녀들에게 주로 잠언을 읽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배를 엮고 기도도 해 주고, 찬양도 불러 주었다. 찬양은 음악성뿐 아니라 과학적, 수학적 재능까지 개발시켜 준다고 황 사모는 조언한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부터 인수기도 해주었다고 한다. 매일 아이들을 내보낼 때에도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줬다. 아무리 바빠도 20-30초라도 기도해줬다.

황경애 사모는 성경 말씀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를 뜻대로 삼고 자녀들을 교육했다.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철저한 훈련시켰다. 황 사모는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아이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었다. 훈련이 되니 아이들이 삶 속에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더라"고 전했다. 〈오상아 기자〉

패밀리인터치, 21세기 성공적 목회 전략은 가정 사역

패밀리인터치는 오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 3회 가정 사역 컨퍼런스를 '21세기 성공적 목회

가 이뤄지며 미주 한인 교회들의 가정 사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회 실정에 맞는 가정 사역을 하

사, 이수일 박사, 안선아 소설위원, 김신호 회계사, 이규재 이사장, 오광복 소장, 오옥희 목사, 이은경 사



정정숙 박사

니스티어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201-242-4422

〈권나라 기자〉

제 3회 가정 사역 컨퍼런스 오는 3월 8일-10일

전략은 가정 사역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한다.

가정 사역 컨퍼런스는 목회자들에게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일

도록 돕는 컨퍼런스이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주강사로 김만풍 목사, 주수일 장로, 정정숙 박사가 나선다. 이외 김충정 박사(패밀리인터치 부원장), 이문희 박

모가 강사로 나선다. 주제 강좌는 목회와 가정 사역 그 현재와 미래, 교회 성장을 위한 가정 사역, 가정 사역을 위한 패러다임 쉬프트, 가족 상담 현장 리포

트, 구원의 완성과 가정 사역, 가정 사역 커리큘럼과 자료이다. 참가 대상은 담임 목회자와 부사역자, 가정 사역에 관심 있는 평신도로 2월 10일까지 등록비는 180불, 2차 등록 마감인 2월 27일까지는 200불, 당일 접수는 220불이다.

〈주강사 소개〉 김만풍 박사는 워싱턴지구총교회 담임으로 남침례신학교(SBTS),

보이스 성서대학 상담학, 예배학 객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수일 장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대학생선교회 회장, 칠성섬유 외 5개 중소기업 회장, 온누리교회 사역 장로를 역임하고 있다.

정정숙 박사는 패밀리인터치 원장으로 교육, 상담 및 가정 사역 전문가로 가정생활, 교회교육 세미나의 주강사로, 교육 및 가정 칼럼

평화나눔공동체, 맨하탄에 노숙자 위한 거리공동체교회 창립

2세 도시 선교사 양성, UN 선교도 예정

뉴욕 맨하탄 도시빈민선교에 들어간 평화나눔공동체가 지난달 26일 펜스테이션에서 거리를 방황

하는 노숙자들과 거리공동체교회를 창립했다. 지난 21일부터 워싱턴 DC를 출발해 메릴랜드,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커네티컷을 거쳐 내달 21에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30일간의 노숙자 체험과 거리전도를 마치게 될 최

상진 목사는 "17명의 노숙자들과 건물 없는 거리교회를 창립했다"고 말했다.

펜스테이션 지하도에 있는 '피자 핫'에서 1시간 가량 모인 첫 모임에서 노숙자들은 최상진 목사와 함께 기도시간을 가졌으며, 앞

으로 교회운영에 대한 많은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평화나눔공동체 거리공동체교회는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리키'라고 이름을 밝힌 노숙자 형제가 공동체교회 코디네이터로 자원봉사하기로 했다.

노숙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최상진 목사는 "펜 스테이션 안에는 현재 3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배회하고 있으며, 이들 중 120여 명이 흑인, 100여 명이 히스패닉, 50여 명이 백인, 30여 명이 아시아인들"이라며, "이들 중 50여 명이 여성 노숙자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물품은

슬리퍼백과 세면도구(비누, 치약, 칫솔, 타월)이며, 간소한 샌드위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11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해 온 평화나눔공동체 거리공동체교회의 특징은 첫째, 노숙자들이 직접 주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자 평신도 중심 사역이다. 〈오상아 기자〉

샌라파엘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샌라파엘 한인장로교회는 1983년 부터 P.C.U.S.A 소속 교회로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합니다.

- 자격:** 1) PCUSA교단소속 혹은 PCUSA교단 Transfer가 법적으로 가능한분.
2) 정규신학대학 M.Div 이상 학위 소지한분.
3) 담임 또는 부목사로서 4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분.
4)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능통하신분.
5)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제출서류:** 1) 이력서(한국어와 영문)- www.pcusa.org/clc에서 P.I.F forms
2) 최종학력 증명서
3) 신앙 고백 및 목회철학 1통(한국어영문)
4) 목회비전 1통
5) 최근 6개월내 설교 CD 2부.
6) 본인 및 가족 소개서 1통-가족사진 1매(6개월이내)
7) 추천서 4통(4통중 3통은 목회자로 한정하며, 추천자 밀봉날인 필수 혹은 추천인이 직접 메일로 보내셔도됩니다. 추천인 4명의 Contact Info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먼저 서류를 접수하신후에, 추천서는 추후에 보내셔도 됩니다.(7일안에)

기타: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선임원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김일 장로(415-491-1932)

제출서류 마감 및 주소:

1. 마감일 없음, 단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검토를 시작하여 담임 목사님 선정할것임.
2.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pcsanrafael@yahoo.com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부흥의 요건 : Failure, Faith, Fear

27일 오후 8시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일일부흥회를 인도한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는 부흥에 필요한 3F를 Failure(실패), Faith(믿음의 눈), Fear(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꼽았다. 김 목사는 룯기4:18-22절 말씀을 주제로 “부흥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와 은혜, 도전을 던졌다. 김 목사는 “미국 사회가 가장 혼란했다고 하는 1960년대, 도

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했다.

실패한 사람을 통해 부흥을 주신다

.....
 하나님은 룯기에서 볼 수 있듯 수없이 실패하고 찌든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다. 김 목사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실패

로 살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쁜 소망을 받고 목회자가 됐으며 그 후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용서의 자리에서 아버지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김 목사는 “미국교회도 주목하는 교회이며 탁월한 스피커인 기본스 목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실패와 수치, 고통을 주시며 빛의 선물, 은사를 통해 목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이 함께 하시던 때임을 깨닫게 된다”면서 “나중이 되어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내다보며 미리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을 주신다

.....
 김 목사는 잠3:5-6에서 ‘경외’를 정의했다.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쫓아오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넌 것이다. 다른 길이 없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실패하고 실패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흥이 임할 줄 믿는다”며 메시지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 부흥회

무지 부흥을 꿈꿀 수 없었던 그 때에 하나님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흥을 주셨다”면서 “이미 다 죽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 강조했다. 그는 “나오미의 가족 역시 기근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 폭삭 망하고 돌아온 실패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가족을 통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조상, 예

자다. 그러나 실패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긍휼을 붙잡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요나, 12제자, 링컨 등을 꼽으며 “이 실패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큰 인물로 쓰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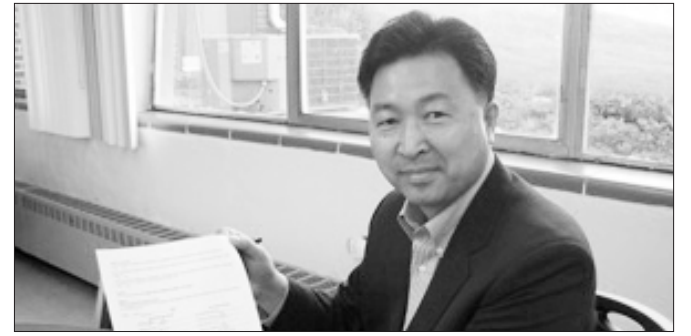
.....
 그는 자신의 지인이자 뉴송교회의 담임인 데이빗 기본스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기본스 목사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고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부흥을 주신다

.....
 김 목사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자부들을 친정에 돌려보낼 때나, 룯기 많은 곡식을 거두어 왔을 때나, 즉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 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었다. 김 목사는 “고통의 현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 않 수 없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때가 바로 하나

교협 비영리기구 등록, 주정부 승인만 남아

증경회장단협이 5명 이사진 선임 중



주정부에 제출한 목회자들의 청원서를 들어 보이는 김광태 목사

.....
 지난 회기부터 시카고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열심을 갖고 진행했던 교협 비영리기구 등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청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가 이미 주정부에 접수된 상황이며 짧으면 한달, 길면 두달 내로 무난히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교협 직전회장인면서 비영리기구 등록에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김광태 목사는 “교협의 법인화는 그동안 비공식 모임으로 존재하던 교협이 법적인 권한과 근거를 갖게 되는 일이다. 비영리기구로서 후원자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
 밝혔다. 김 목사는 “시카고 교계의 공신력 있는 협회로서 교협이 기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
 한편, 비영리기구 등록이 대략 완료된 상황에서 교협은 5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교협의 이사진은 시카고지역 기독교증경회장단협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번엔 탄생할 비영리기구는 교협의 이름으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시카고한인교회자회와 증경회장단협을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역자회는 제40차 총회에서 비영리기구로 설립되면 교역자회도 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도록 결의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한인교회 위한 신학 고전 강독 시작된다

CSKC, 2010년 사역 위한 회의 열려

.....
 자랑스런 한국 신학을 미국 신학과와 한인 이민교회에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창립된 한국기독교연구원(Center for Study of Korean Christianity)가 올해부터는 정기 월례포럼 외에 이민신학 포럼, 신학 고전 강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교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
 1월 30일 서보명 교수와 연구원들은 ‘2010년 봄학기를 위한 회의’를 열고 CSKC의 지난해 사역을 돌아보는 한편, 새로운 사역, 혹은 과거에 중단됐지만 재개할 필요가 있는 사역에 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가장 주목받게 될 사

.....
 역은 신학 고전 강독이다. 그동안 CSKC가 시카고신학교(CTS), 시카고루터란신학교(LSTC), 맥코믹신학교 등 시카고 남부의 신학교 밀집 지역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신학과 미국신학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주력했다면 이 신학 고전 강독은 한인들이 밀집한 북부 서버브 지역에서 한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저명한 신학 서적을 함께 공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서 교수는 “성도들에게 한국 신학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이를 통해 성숙한 신앙 생활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학 강독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미정이다. <김준형 기자>

미국의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섬긴 몽골 청년들



몽골국제대학교 학생들이 시카고를 방문했다. 사진은 시카고에서의 마지막 날, 굿뉴스미션이 준비한 만찬

몽골국제대학교 청년들 미주 비전트립

.....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한국까지 정복해 세계 최대의 국가를 형성했던 몽골. 기독교세가 3% 정도인 몽골의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비전트립을 와 시카고에 머물렀다. 몽골국제대학교 권오문 총장과 배문한 교수를 비롯해 17명의 학생들은 지난 12월 27일

.....
 달라스에 도착해 차를 몰고 미주를 여행하며 27일만에 시카고에 도착했다.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사)에서 이들을 호스트했고 그 기간동안 웨스트시카고온누리교회(다운문 캠퍼스(김용정 목사)가 투어를 맡아 섬겼다.

.....
 몽골에 있어서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민족으로 꼽히는 것이 몽골과 한국, 두 민족이다. 요즘은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없는 몽골인이 드물 정도다. 개방의 물결을 타면서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활발해졌고 현지에 한국인이 세운 대학만 해도 6개다. 그 중 하나가 몽골국제대학교다.

.....
 이제 막 개방의 물결을 타는 몽골인들에게 미국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몽골의 청년들에게 비전과 미래가 있는 희망의 땅이다. 한 달가량 미주를 여행한 이들은 그저 미국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이 몽골 청년들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 중에도 크리스천들이 섬긴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학생들의 절반가량은 비기독교인이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현지의 한인 교회들이 호스트를 했다.

.....
 시카고만 해도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을 그레이스교회가 맡았고 웨스트시카고온누리교회는 월로크릭교회, 핏튼칼리지, 트리니티칼리지, UIC 등 명소와 대학 투어를 맡았다. 권 총장에 따르면, 미국으로 비전트립을 간다는 말에 비기독교인들의 부모들은 처음엔 큰 호응을 보냈지만 현지 한인교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반색했다. 권 총장은 “교회들 말곤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원하는 단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고 되물었다고 한다.

.....
 그렇게 비전트립은 성사됐고 미국에 온 몽골 학생들은 한인들을 통해 미국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게 됐다.

한국 글로벌 비전기독교학교 사역자 청빙

.....
 한국의 음성과 문명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기독교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에서는 청소년 선교교육사역에 함께할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1. 사역분야

- 1) 과목교사(영어로 수업가능한분으로서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수학, 과학, 역사, 사회 분야
- 2) 생활관 부부 지도교사(간단한영어회화 가능자, 선교사, 목회자, 교회중직자 출신 환영, 초대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부부사역자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고 1년이상 사역이 가능한분
 - 음주흡연을 하지않고 경건회 및 신앙지도 가능한분
 - 학생 기숙사에서 별도의 생활지도교사 숙소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가능 한분

2. 처우

- 1) 교사: 숙소 및 1일 점심저녁 제공, 왕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 지원, 연봉 \$20,000.00 에서 \$25,000.00 지급, 주5일제, 방학휴가
- 2) 생활관부부지도교사: 생활관내 부부교사 거주, 1일 3식제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지원, 연봉\$10,000.00 에서 \$15,000.00 지급, 주5일 근무, 년간 6주휴가.
- 3) 자원봉사 사역자에게는 : 항공권, 숙소, 1일3식, 및 매월 \$500.00의 활동비 지급, 자원봉사자로 지원 하시는분 우선 선발 (최소 6개월 사역조건)

3.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가족 및 신앙간증 포함)
- 이력서에 소개된 학력 경력 증명자료
- 건강 진단서
- 여권사본

4. 연락처

- GEMGVCS 미주본부장: 1-951-704-6087
- 한국인사과장 이재운: 82-10-6625-3043
- E-mail: gemgvcs@naver.com
- 홈페이지: www.gemgem.org

5. 모집기한

- 1) 2010 봄학기 시작사역자: 2010 2월 10일까지 한국학교 부임 가능하도록 1월 31일까지 신청
- 2) 2010 가을학기 시작사역자: 2010 8월 1일까지 한국 학교 부임가능하도록 6월 30일까지 신청 (*조기에 마감할수도 있음)

SFHOPFAN, 프로포지션8 재판 위한 저스티스 플레이어 워치

법률단, 증인으로 출석하는 성도들 위한 기도 절실

SFHOPFAN(SF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Directors: Michael Dowling, Anne Trumbo)는 1월 29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프로포지션8 재판을 위한 저스티스 플레이어 워치를 가진다. SFHOPFAN은 중요한 기도 포인트로 법률단, 증인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꼽아 주었다. SFHOPFAN은 "샌프란시스코 캅거루 코트는 프로포지션 8의 후원자들이나 이를 찬성해 투

표한 모든 이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다. 법정 앞에 선 우리 형제들을 위해, 또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 그분의 말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전했다. 집회 장소는 Living Water Fellowship(1438 Pine Street between Polk & Larkin, SF)이다. SFHOPFAN은 샌프란시스코와 베이에어리어 지역을 위해 기도하

는 지역 내 대표적인 중보기도단체로서, 매 주 월, 화, 수, 금 철야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프로포지션8 재판에 나선 변호사 앤디 푸그노(Andy Pugno)가 금번 재판에 대해서 나왔다. ProtectMarriage.com Yes on 8 법률고문 푸그노는 "우리 반대 측은 프로포지션 8이 동성애에 대한 극한 적대감과 편견으로 또는 적절치 않은 종교적인 견해로 인해 통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

쓸 것이다. 또 동성결혼의 금지는 차별에 가깝다고 말하려고 할 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번 재판의 최종결과가 미국 전체의 결혼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결정지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법률 팀은 지역 법원에서의 재판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대법원까지 갈 준비도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아이티로 출발할 형제교회 의료팀

형제교회 의료팀 아이티로 출발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의료팀이 아이티 상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형제교회 의료팀은 발전문의 주요한 전도사를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28일 부터 약 열흘 동안 아이티에서 의료 활동을 펼친다. 형제교회 의료팀은 각종 의약품, 수술기자재와 함께 형제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은 4만불의 헌금을 전달하게 된다. 현재 아이티에는 외상환자들이 많아 다수의 외과 수술이 예상되며, 의료진들은 이를 위해 목발 100여개를 준비했다. 목발은 절단 수술 후 아이티 부상자들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게 될 도구로 형제교회 성도들의 도네이션으로 모

아졌다. 의료팀을 향한 지원도 계속 되고 있다. 항공사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형제 의료팀의 약 25000달러의 항공편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약국, 벤엘 약국, 하일랜드 약국, 린우드 건강마을에서 약품을 지원했다. 주요한 전도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팀은 현지 군 사마리탄 병원에서 환자들의 수술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2010년 한미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합심 기도하는 참석자들

워싱턴주 국가 조찬 기도회 성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2010년 워싱턴주 한미국가조찬 기도회(회장 이상진 장로)가 지난 30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사회단체장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과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세계경제 번영과 민족 화합, 세계선교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의 주제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하박국3:2)였으며,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곳곳에서 빈발하는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등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간구했다. 이상진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인 송면식 장로가 개회 기도, 올림피아 기독교연합회장인 최윤현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 한국의 부흥, 통일, 정치경제의 도약, 한국대통령, 내각과 지도자 ▲ 미국의 부흥과 화합,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각과 지도자 ▲ 세계의 평화와 경제적 회복과 부흥, 아이티 지진참사의 복구, 회복, 부흥 ▲ 서북미와 미주한인동포사회의 화합과 부흥, 서북미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으며, 이를 위해 타코

마 목사회장인 이동기 목사, 웨드럴웨이 교회연합회장인 원호 목사, 최요셉 집사, 김순철 장로가 각각 기도했다. 이날 설교는 국가조찬 기도회 자문위원인 송천호 목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천국이 확장된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송 목사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 모든 부분에서 용서와 화해, 상생과 사랑을 회복해 천국을 확장해 가자"고 설교했다. 축사는 시애틀 이하룡 총영사, 워싱턴주 상원의원인 신호범 의원이 전했다. 특별히 지난 11월 한 인게로 타코마 시장에 당선된 메

릴린 스트릭랜드 시장이 참석해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워싱턴주 양대 한인회인 시애틀 한인회와 타코마 한인회의 이광술 회장과 장식태 회장도 참석해 함께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국가조찬 기도회 지도 목사인 권준 목사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1968년 제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2회째를 맞고 있으며 워싱턴주 한미 국가 조찬기도회는 올해가 5회째를 맞고 있다. 지회로는 본국 내 16개 지회를 갖고 있으며 해외에는 북가주지회를 비롯해 워싱턴주지회, 남가주지회, 페루지회, 호주지회, 조지아지회, 뉴욕지회, 일리노이주지회, 워싱턴D.C지회, 캐나다동부지회, 일본 오사카지회 등 11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선교 저금통 교인들에게 배부했더니.. 3000불 모여

상향중앙장로교회 선교기금위한 저금통 올해도 배부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는 1월 24일부터 선교기금을 위한 저금통을 교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문일성 장로(상향중앙장로교회 선교위원회 총무)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선교저금통을 통해 지난해 3000불 가까운 액수가 모금됐다. 엄청난 결과다"라며 "어려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문 장로는 "금년에도 경제가 어려워 한푼 두푼 아끼고 있는데, 그렇게 아낀 것들이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인들의 사랑을 담아가기만 한다면 저금통이 차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고승희 칼럼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여름내 그늘에 앉아 노래만 부르던 베짖이가 개미의 집을 찾아온다. 그러나 개미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 좁고 배

몇 백배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기도 한다. 개미는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개미의 탓은 아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으니 그에게 벌을 내릴 순 없다. 다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에 눈을 감았던 잘못이 있어 스스로 도태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조직형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과 정보형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미는 협동심, 조직성, 근면성의 상징이다. 지구에 등장한 생물체 중에서 개미처럼 단단한 조직을 이루며 유구한 세월을 사는 생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개미는 근대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 85마리는 일을 하지 않고 허둥대거나, 괜히 남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또는 일하는 걸 지켜보는 일을 한다. 다시 그들 중 일하는 15마리를 모아 번호를 붙여 두면 역시 그 중에서 15%만이 일한다. 무릇 땅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잘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얘기다. 조직의 생리상 일하는 자와 조직에 얽혀사는 자가 있게 마련인 근대 관료 조직의 특성이 그렇다.

그럼 거미는 어떨까? 땅에 구멍을 파고 사는 개미와 달리 거미는 허공에 그물을 치

를 지닌 칭기즈 칸의 몽골 유목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간 이후 '평생 해고당하지' 않고 3, 40년 근속을 한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일 그가 타이어 완성 반에서 근무했다고 치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이 없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무엇일까? 타이어가 몇 개 생산되었는지 숫자만 세다가 평생을 보낸 것이

정인량 칼럼



정인량 목사
워싱턴영광장로교회

삼촌불단지설(三寸不爛之舌)은 세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를 가졌지만 못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단한 언변의 소유자를 이르는 고사성어이다.

그 언변에 있어서 세계 일류가 아닐까 한다. 그중에서도 발군의 실력으로 소위 말 잘하는 목사들의 랭킹이 이미 세인 입에 오르내린지 오래 되었다.

말 잘하는 것이야 어디 흉이 되겠는가마는 개중에는 청산유수로 말만 잘한다는 이 '만'자 하나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 잘하는 것과 말만 잘하는 것은 글자 하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이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말이 설교(說教)가 되는가 아니면 교설(巧說)이 되는가에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분은 아나운서보다 더 매끄럽게 말 잘하는 분이 있다. 그분의 가계(家系)가 모두 언변의 탁월한 은사를 가졌으니

시대를 읽는 눈과 안목이 필요하다

고픈 베짖이는 그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당연한 문제에 혼란스러워 한 어린이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당연한 답이 없어졌다. 아니 정답이 변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나 노래 한곡을 잘 만들어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이익을 남기는 세상이 되었다. 노래하는 베짖이들이 노동을 하는 개미들보다 몇 십 배,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향했던 서구적 가치관의 정점을 보인다.

그간 개미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산업사회의 가치관에 걸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하는 개미에 번호를 붙여 활영해 보면 100마리 가운데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15마리에

고 산다. 그러다 먹이가 걸리면 기습 공격을 해 먹이를 나눠챈다. 거미 세계는 관료 사회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정보를 먹고 사는 네트워크 사회다. 개미가 관료 마인드를 갖고 산다면, 거미는 정교사 증명하듯 거미의 마인드와 동작들은 개미로서는 납득도 예측도 되지 않는 것이다. 개미의 마인드를 갖고 있던 중세의 유럽에서, 거미의 마인드

가? 그가 속한 조직은 완성체인지 모르지만, 그 속의 개개인은 부속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처음이자 끝인 완성체가 바로 인간이다. 워싱턴안테나와 같은 정보망을 펼쳐놓고 세상을 내려보고 있는 거미의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 조직형 인간이 아니라 정보형 인간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다.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안목이 필요하다.

설교(說教)와 교설(巧說)

혹은 줄여서 삼촌설(三寸舌)이라고도 한다. 이 삼촌설의 대표격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조(趙)나라 평원군(平原君)의 식객 모수(毛遂)나 한(漢)나라의 장량(張良) 아니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모사 제갈량 정도이다.

오늘날도 삼촌설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직종으로 따진다면 단연코 목사라 할 것이다. 목사 중에도 한국 목사들이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은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 말의 전달에 있어서도 고급이어서 도대체 "에 또, 음, 저.."등의 중단음이 없다. 타고난 언사에 노력까지 불사하니 타의 추종을 불허할 터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의 설교 전달방법을 모방하여 둔설자(鈍舌者)의 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장세규 칼럼



장세규 목사
한빛지구촌교회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연방 상원 보궐 선거에서 스킷 브라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는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연방 상원직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1962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9번에 걸쳐 재선되어 46년간 메사추세츠 주를 연방 상원에서 대표하였습니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민주당의 안방으로 간주되는 메사추세츠 주에서도 케네디 상원의원이 가진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더욱이 테드 케

주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운명하고 나서 이루어진 보궐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이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주 상원 및 하원 의원의 경력이 전부인 지역

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에 상당한 손상이 간 것입니다. 특히 브라운 후보가 내건 선거 공약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삼을만한 거대한 도전이었던 미국 의료 제도 개혁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당치

은 단순히 심리적인 시기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민주당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기에 때문에 공화당이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저지 수단이 의사진행방해 발언(필리버스터)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을

네디 상원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꼭 60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브라운 당선자가 취임선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지 못합니다. 일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개혁안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직 상원의원직을 하루도 수행하기 전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커진 역사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세워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장래에, 한민족의 장래에 작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네디 상원의원이 상원의원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1952년에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자신의 큰 형인 존이 대통령이 되어서 빈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에서 두 형제가 1953년 이후 메사추세츠 주 출신 상원의원을 하면서 출신 주 뿐 아니라 미국 전국에 민

정치인인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도적인 열세를 뒤집고 브라운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에 충격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던 후보가 떨어지고 가능성없어 보이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공약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이 100년 만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막아내겠다는 공약이 사람들에게 먹혔던 것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브라운 당선자로 인한 충격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그만 둘 때까지 발언을 막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표결 시한이 지날 때까지 발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방해 발언도 상원의원 60명이 결의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메사추세츠 주 보궐 선거전까지 작고한 테드 케

“당신도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LA) 2010년도 주하나치유학교 파사데나 인텐시브코스 스케줄

- ◆ 현대 치유신학 체계적 정립
- ◆ 비전과 사명 부여
- ◆ 사역자의 성령세례
- ◆ 능력과 기름부음

강의내용: 신유, 내적치유, 축사, 은사

숙식+교재포함 4일간 일인당 \$500 (부부일인당\$450)
숙식을 개인이 해결 할 경우 일인당 \$350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합니다.

2010년 2월 8일(월)-11일(목) 4일간 인텐시브코스

장소: 1539 E. Howard St. TU-6C, Pasadena, CA 91104 윌리암케리국제대학
등록: 김재원목사 (808)372-1485
E-mail: inchristhealing@gmail.com



목회자 치유사역 특강
강사: 마이크 에반스
Wholeness Ministries
제목: 육신과 감정과 영을 치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기름부음과 임파테이션 기도가 있습니다.
일시: 2010년 2월 15일(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등록금: \$50불(점심+교재 포함)
장소: LA 파사데나(윌리암케리국제대학)
1539 E. Howard St., TU-6C
Pasadena, CA 91104
등록: 김재원목사(808)372-1485



축사사역세미나
강사: 그렉 컵페트릭 목사
제목: 완전한 축사사역의 4단계 *이론과 실제 실습이 있습니다.
장소: LA 파사데나 (윌리암케리국제대학)
1539 E. Howard St., TU-6C
Pasadena, CA 91104
일시: 2010년 2월 27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등록금: \$50(점심+교재 포함)
등록: 김재원 목사(808)372-1485

등록/문의

Tel. (808) 372-1485 김재원 목사 e-mail: inchristhealing@gmail.com www.inchristhealing.org

하와이 - 주하나치유학교 One in Christ Crusade Healing School/Healing Ministries 95-016 Kuahelani Ave., Mililani, HI 96789

건강 칼럼



조 선 혜 원장
LA 동국대 한방병원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마늘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방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영국의 마늘연구 센터에 의하면, 마늘의 주성분

우 함응고 작용이 증가되어, 출혈 시 지혈이 안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Warfarin 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황기는 콩과와 중 국에서 자생하는 콩과 식물의

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기는 백혈구의 증식을 촉진하는 작용이 현대 약리학적으로 증명된 생약으로 감기에 매우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진피(귤껍질)는 거담

두통이 심한 감기에 좋으며, 길경(도라지)은 목감기에 효과적이는데, 이들은 모두 감기처방에 많이 쓰이는 한약재입니다. 또,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 배즙 등도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감기 예방법입니다.

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물에 끓여 설탕, 꿀 등을 적당히 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배는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이며, 감증을 멎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배를 껍질째 씻어 윗부분을 잘라내고 심을 파낸 뒤에 대추나 인삼 또는 오미자와 대추 또는 꿀을 넣고 찌서 즙을 내어 마시면 좋습니다. 급할 때에는 배즙만 마셔도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LA 동국대 한방병원장 조선헬 213-487-0150

감기에 좋은 한약과 차

인 알리신이 면역증강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감기의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 함응고제인 Warfarin과 동시에 복용할 경

뿌리를 건조한 한약재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기를 북돋아주고, 체표의 땀을 멎추게 하는 효능이 있고, 또 탁독배농의 효능을 겸하여 콧물, 가래와 같은 담

작용과 기관지의 수축·억제작용을 가지고 있어, 기침감기에 차를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계지는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갈근(참)은 열이 나고

그어서 피부 질환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외관상 피부의 염증이 나 부종이 가라앉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의 피부 질환 개선 목적으로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위축, 혈관 확장, 피부 탄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환자의 자각 증상으로는 발열, 작열감, 발진, 홍조, 가려움 등이 나타난다.

보험 칼럼



진 철 희 사장
캘코보험

비스를 마련하는 집단 구성체이다.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서비스 금액을 받고 환자들로부터 또한 적은 금액의 '코페이먼트'를 받고 넓은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랜은 70년대 초반까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1973년 HMO Act 제정으로 기록적인 보급률로 엄청난 고객을 확보하였다. 1995년 이후 'Blue Cross' 와 'Blue Shield' 에서도 독자적인 HMO플랜을 개발하면서부터 지금의 보편화된 HMO플랜에 이르게 되었다.

2. HMO 보험의 장점
- 기존의 건강보험플랜에서 규정지은 가입자가 의사 방문 시 미리 지불을 해야할 '디덕터블' 과 '코페이먼트'가 없거나 부담이 적다.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건강 보험 업계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종전의 전형적인 건강 보험의 구조는 더 이상 고객들로부터 가장 좋은 배

건강보험의HMO란 어떤 것인가?

네트 플랜이라는 통념에서 일보 후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 개발된 건강 보험 플랜으로 우리가 익히 들은바 있는 'HMO', 'PPO', 'PO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플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HMO(주치의 의사제) 플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1.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의 발전 과정

HMO는 1938년에 건설업자였던 Henry Kaiser가 자신의 직원들이 'Grand Coulee' 댐 공사를 할 당시 그들을 위한 단체 건강보험으로 창시되었다. 현재 HMO는 일반 및 전문 의사진들로 구성된 다양한 의료 서

- "예방치료"를 위주로 하는 조기진단에 의한 노력으로 발생가능성의 큰 비용을 절감 및 조정할 수 있다.

- 그룹건강보험의 경우 종업원의 연령이 젊고 가족을 가진 이들에게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종업원과 고용주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병원을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료비용절감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HMO 보험의 단점

- 플랜가입자는 사전에 지정된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진찰 및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소개된 전문의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비상시를 제외하고 HMO 멤버가 아닌 의사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

한방 칼럼



봉 승 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아토피와 스테로이드 이야기>

지금까지 아토피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만 여겨졌다. 아토피의 주요 원인을 환경오

염, 새집 증후군 등으로 보는 견해도 많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토피의 하나의 큰 원인이 지훈이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즉 스테로이드 제제이다.

피부의 상처를 완화하고 발진을 가라앉히는 응급약으로 사용되어온 스테로이드가 왜 이렇듯 아토피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는가?

스테로이드 연고는 염증과 면역을 차단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혈관을 축소시켜서 혈액의 유입을 감소시킨다. 혈액

의 대량유입으로 염증반응이 진행된다면, 스테로이드는 바로 이런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부 질환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외관상 피부의 염증이 나 부종이 가라앉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의 피부 질환 개선 목적으로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위축, 혈관 확장, 피부 탄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환자의 자각 증상으로는 발열, 작열감, 발진, 홍조, 가려움 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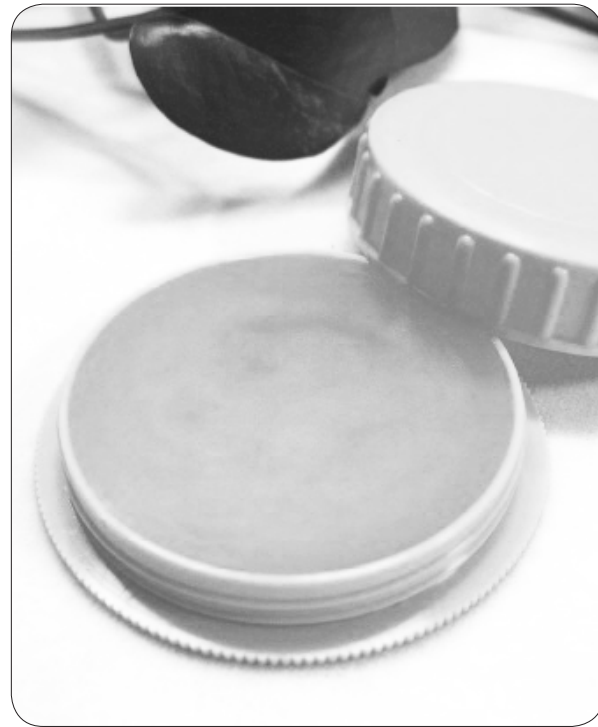
피부는 정상적인 기혈 순환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스테로이드의 독성이 인체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하여 여러 가지 피부

있는 기회가 되므로 가만히 있으면 자연 치유가 될 증상이 아토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스테로이드 연고는 한번이라도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연고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이나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전신적이고 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증상이 잘 소실되고 가려움증도 즉시 멎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요즘도 대부분의 연고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또한 이런 환경에 오래 길들여진 환자는 하루 아침에 연고를 중단하기란 쉽지가 않다. 연고를 중단하면 극심한 가려움증

무심코 바른 피부 연고가 아토피의 원인이라면?



질환을 일으키게 만든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부연고에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즉시 가려움이 없어지고 피부도 하얗게 변하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스테로이드 연고를 피부 발진이 있는 곳에 한 번만 소량으로 사용하게 되어도 그 부위에는 적어도 24시간 정도 백혈구의 작용이 억제되어 면역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24시간 동안은 국소 부위에 감염된 미생물이 피부 조직 깊숙이 침입할 수

과 피부의 염증이 더운 심해지는 리바운드(반동)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가 가려워지고 붉어지는 증상은 악화되는 것이 아닌 피부가 인체에 유입된 스테로이드의 독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신호임을 알아야한다. 피부의 면역회복을 위한 이런 과정을 잘 참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오랜 시간 난치병으로 인식되었던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

경희한방병원 가든그로브 (714)537-0800 / 엘바인 (949)355-5594



로버트 박 선교사를 위한 기도문

"내 소원은 단 하나,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는 인생에 다른 아무런 야망이나 개인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 일에 힘써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로버트 박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로버트 박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홀로 들어간 로버트 박 선교사의 강건한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그를 보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나성순복음교회와 나라 자동차 종합 정비&바디 샵 올림

비석도 없이 공동묘지에 묻힌, 위대한 종교개혁자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저물어 가는 갈뱅의 인생



마지막 설교하는 갈뱅.

1. 갈뱅의 검소한 생활

적지 않은 사례를 받았던 갈뱅은 평생 남의 집에서만 살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자주 여러 곳을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갈뱅이 살았던 집은 주인인 Fresneville가 주네브를 얼마동안 떠나게 되자 그 집에 살게 되었지만, 그의 요구로 다시 옆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그러다가 2년 후 주네브의 영주가 Fresneville의 집을 구입하면서, 갈뱅은 다시 그곳으로 이사하여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살게 된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동생 앙투안(Antoine)이 그곳을 머물게 된다. 그의 집은 정원 하나가 있었으며 호수와 산이 내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고, 갈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곤 하였다.

1548년에 그가 살고 있던 집을 수리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재산 목록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의 검소한 모습을 엿보게 된다. 단조롭게 생긴 나무 침대 두 개, 호두나무로 만든 탁자, 찬장 두 개, 상자

한개, 팔걸이 없는 등반이 의자 하나, 몇 개의 결상, 팔걸이 등반이 나무 의자, 독서용 작은 책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가구들은 갈뱅의 소유가 아니라 집 주인인 영주의 것이었다. 갈뱅은 가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영주로부터 이것들을 구입하고자 하나 영주는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팔기를 거절하므로, 쿠션과 침대 커버, 주석으로 된 소품 몇 가지를 구입하였다. 이런 것들이 갈뱅의 재산 목록의 전부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집에서 별 불편함 없이 살았다. 그러나 그의 비서 프랑수와(Francois Baudoin)가 도벽으로 인해 고생을 하곤 했으며, 동생 앙투안의 하인 삐에르(Pierre Daguett)가 앙투안의 부인과의 불륜을 맺음으로 갈뱅은 매우 힘들어 했다.

2. 돌아보는 그의 인생

관절염, 요도 결석, 치질, 복통, 위장병, 편두통 등 여러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갈뱅은 그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사의 요구로 계란과 작은 잔의 포도주로만 점심 식사를 하였다. 설교를 중단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회수가 찾아지므로 설교도 중단하여야 했다. 그의 재산은 동생과 조카, 그리고 학교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단체에 나누어 주었다. 1564년 4월 28일 금요일, 갈뱅의 요청으로 주네브의 모든 형제 사역자들이 연락받고 그의 방에 모여 들었다. 그리고 갈뱅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며 개혁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는 고백하였다.

“내가 처음 이 교회로 부임했을 때, 교회에는 설교가 전나무 침대 두 개, 호두나무로 만든 탁자, 찬장 두 개, 상자

혁의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집에서 지내왔는데, 어떤 날 저녁에 집문 앞에서 화승총으로 5-60명의 총을 쏘면서 나를 조롱하곤 했습니다. 겁 많은 어린 아이와 같은 내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 것인지 상상이 되나요?...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다시 청빙받아 사역을 시작하려 했을 때에도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 22: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의 말씀처럼, 개들(갈뱅의 적대자들)은 나에게 ‘불쌍한 놈! 불쌍한 놈!’이라 소리 지르며 내 뒤를 쫓아다녔고 내 다리와 내 옷을 물어 뜯었습니다...

나는 많은 결점들을 갖고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나를 인내하면서 수용해서야 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실상 가치를 없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내가 한 모든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에 대해 항상 아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뿌리가 내 마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뱅은 한 사

람한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였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슴 아픔과 슬픔을 느꼈다. 5월 19일 저녁부터 그의 허리 위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정신은 약해졌다. 짧은 호흡이 많아지고 계속된 그의 기도 소리는 오히려 간단한 탄식과 같았으나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그의 좋은 믿음과 그가 가졌던 경험의 증거를 볼 수 있었다. 5월 27일 밤 8시 경에 갈뱅이 운명 직전이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받은 후임자 베즈와 많은 형제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는 평온한 상태로 이미 운명한 상태였다. 그 시간에 그날의 태양은 기울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큰 빛은 하늘로 돌아갔다.

1564년 5월 28일 오후, 봄 햇살 아래 주네브 근처 Plainpalais 공동 묘지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몇 일 전에 파 놓은 구덩이를 향하고 있었다. 이 작은 그룹에는 후계자 베즈와 고인의 형제 앙투안(Antoine)과 여동생 마리(Marie)와 몇몇 친근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네브 시민들은 유언에 따라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어떤 예식도, 설교도, 찬송도 없었다. 벌려진 땅 속으로 간단한 수의로 싸여진 그의 시신은 서서히 내

려졌고 마침내 그의 수고로운 몸은 땅에 묻혀졌다. 께먼 커다란 침대보가 관을 대신하였다. 유언에 따라 무덤도, 비석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념할 만한 것을 세우지 않았다.

무덤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도 만들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묻을 것을 요구했기에, 그가 죽은 지 몇 달 뒤, 외국 학생들이 그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에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18세기에 와서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의 요구에 따라, 무덤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장 갈뱅이라는 이름의 이니셜 ‘J.C’를 작은 돌에 새겨 그의 무덤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일설에 의하면 네덜란드 사람이 갈뱅의 묘를 어렵게 찾아 확인하고 이니셜을 새겼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

재의 갈뱅의 무덤의 그의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무덤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갈뱅의 삶을 아주 짧게 설명하는 안내판이 추가되었다.

현지에 계신 목사님에 따르면, 갈뱅의 무덤을 새롭게 단장한 한 변호사는 몇 제네바 시민들에 의해 무덤을 새로 꾸민 것은 고인의 유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4백년이 훨씬 넘은 무덤을 단장한 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인의 유언을 어기는 것·법적·자속을 받는·것 인지는 판례가 없기에 앞으로 계속 연구해보겠다”는 애매한 판결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익 선교사 pariskwon@hanmail.net



갈뱅의 무덤이었음을 알리는 이니셜 'J.C'가 희미하게 보인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무덤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갈뱅의 삶을 아주 짧게 설명하는 안내판이 추가되었다.



갈뱅의 단장된 무덤.



임종 전 마지막 교제를 나누는 갈뱅.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 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

프라이 생등심	프라이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흑염소
샤브 샤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김기형 전차장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을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20~30야드 더 멀리 Carbite

맞춤 드라이브

파격 SALE

~~\$500~~ → \$149
~~\$300~~ → \$99

환불보장
20-30야드 더 멀리
다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EAGLE GOLF 213-858-7979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웨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컴퓨터의 모든것

Computer & DVR

- 출장수기 once \$29, monthly \$50
- 컴퓨터 판매 - DVR 판매, 수리
- 인터넷(Virus) 문제해결 - 4ch DVR \$599부터

James Oh **213.814.9004** / www.comdvr.com
3200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반값으로 할 수 있다

차바디수리 50%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TEL. (213) 265-8485 / (213) 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전문

(213) 700 6484 (24Hrs)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튼 전문 업체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모든 자동차 유리 두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브레이크
- 타이밍벨트
- 튜업 정비

10% 할인

\$12.99 *tax 6cyl.
\$ 9.99 *tax 4cyl.
\$14.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집수리 일체

내집처럼 성실하게 저렴하게

(714)749-6406

K ONE Plumbing

- ✓ Faucet, 디스포설, Water heater, 보일러
- ✓ 싱크, Toilet, 욕조, 각종밸브, 수리, 설치, 교환
- ✓ 리파이핑 무료 견적
- ✓ 새는 곳, 막힌 곳 플러밍 문제 상담 환영

213.663.6854

< 교회 플러밍 공사 특별할인 >

AMAZING 에어컨백화점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망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A, 샌디, 유머, 상하문

7년 연속 에어컨 1위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Joseph INTERIOR

인테리어

· 창문, 도어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이트
· 페리오, 텍크, 웰스,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물딩, 페인팅 (아우스, 점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 (실로암 수양관)
· 노약자 돌봐드릴 공기좋은 곳, 정성된 식사와 간호로 성심껏 4분만 모십니다
· 헬렌데일지역 별장 휴양지 가족방문시 방문료 제공

323.788.8689 김메스더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자재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라이선스 보유/환비)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제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21세기 성공적 목회전략은 가정사역에 있습니다”

The 3rd Family Ministry Conference

가정사역의 불꽃을 지피는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미주 한인 교회들의 가정사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 교회 실정에 맞는 가정사역을 하도록 돕는 컨퍼런스입니다. 제 1,2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21세기 성공적 목회를 꿈꾸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컨퍼런스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초청합니다.



주강사 소개



김만풍 목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담임 / 남침례신학교(SBTS) / 보이스 성서대학 상담학 / 예배학 객원교수 / 국제전도복발 북미주 한인본부 대표 / 미주 코스타 전대표/현이사



주수일 장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한국대학생 선교회 회장 / 침성섬유 외 5개 중소기업 회장 / 온누리 교회 사역장로 / 극동방송 "가정 칼럼" / "가정 행복 강의" 고정출연 / 저서: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국민일보) / 진새골 사랑 이야기 (두란노) / 현 사회복지 재단 "사랑의 집" 대표



정정숙 박사
 패밀리 터치 원장 / 교육, 상담 및 가정사역 전문 / 가정생활, 교회 교육 세미나 주강사 / 교육 및 가정 칼럼니스트 / 객원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 / 철학 박사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A & Ph.D.)

날짜 3월 8일(월) ~ 10일(수) 9:30 am ~ 5:30 pm

장소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뉴욕교회)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주주 등 21세기 성공적 목회전략은 가정 사역에 있습니다!
 패밀리 터치 / 패밀리 터치 (Family Touch) 240 Grand Ave. #6 Leonia, NJ 07605, Tel: 201-242-4422

참가대상 담임 목회자, 부사역자들과 가정 사역에 관심있는 평신도
참가비 \$ 180 (2월 10일 마감), \$ 200 (2월 27일 마감), \$ 220 (당일 접수)

강사 김만풍 목사, 주수일 장로, 정정숙 박사, 김충정 박사 / 이문희 박사, 이수일 박사, 안선아 소셜워커, 김신호 회계사 / 이규재 이사장, 오광복 소장, 오옥희 목사, 이은경 사모

목적 1. 21세기 목회에서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2. 목회자들에게 가정사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3. 평신도 가정 사역자를 훈련한다.
 4. 지역교회의 현실에 맞는 가정사역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5. 상담가, 사회복지사, 가정문제 전문가들에게 지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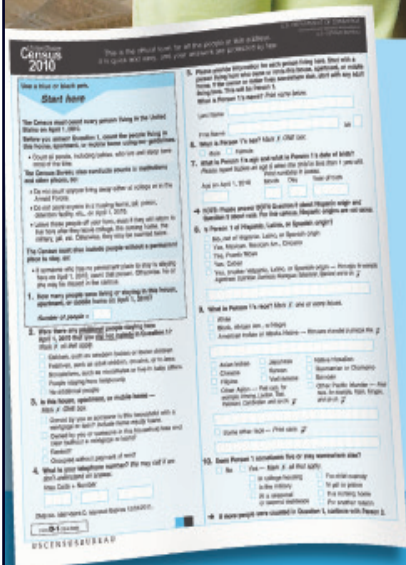
주제강좌 목회와 가정사역, 그 현재와 미래 / 교회 성장을 위한 가정사역, 가정사역을 위한 파라다임 슈프트 / 가족 상담 현장 리포트, 구원의 완성과 가정사역 / 가정 사역 커리큘럼과 자료

선택강좌 목회 상담, 부부사역, 부모 사역, 시니어 사역, 우울증 및 분노 치유 세미나, 청지기 재정교실, 성격 이해 세미나 : 에니어그램, 성격 이해 세미나 II: M. B. T. I, 가정 폭력, 이혼회복사역, Prepare & Enrich (예비 커플과 커플 상담) 전문 가정 사역자 훈련, 사랑의 대화기술 (Mastering the Mysteries of Love),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상담방향 /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후원

프라미스 교회, 찬양 교회, 후러싱 제일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베다니 교회, 뉴욕 장로교회, 소망 장로교회, 효신 장로교회, 퀸즈 중앙 장로교회, 뉴욕 새교회, 뉴욕 지구촌 교회, 뉴욕 초대교회, 스피디 인쇄, 교회넷, 기독 뉴스, 기독 일보, 미주 기독교 방송, 아멘넷, CTS USA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길-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인구조사 양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커뮤니티의 학교 개선, 직업훈련 증가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하신 후 양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의 커뮤니티를 키울 힘이 있습니다.

-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3월에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양식에 답변하신 후에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